

教旨

幼學

人入格

乾隆五十一

夜靜海清三萬里

水底天長倚妙高
秋光無限醉香醪

吞雲夢度胸襟豁

역사기행

고대 삼양동마을의 형성과 변천 / 김경주

김유(金柔) 대정현감의 과거급제와 관료생활 / 강창룡



고대 삼양동마을의 형성과 변천



김 경 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1. 머리말

최근 제주지역에서 대규모 마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마을에 대한 조사가 급증하면서 고대 마을유적에 대한 연구 역시 진전되고 있다(김경주 2009). 이와 같이 야외 마을유적에 대한 조사는 삼양동유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당시 구획정리사업 도중에 집터와 유물이 확인되면서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2001·2002). 조사 결과 소위 「송국리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삼화지구에서 이 보다 앞서는 「역삼동문화」단계의 마을이 확인되면서 삼양동 고대마을의 출현시기를 더욱 올려볼 수 있게 되었다(국립제주박물관 2010).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참고하면 삼양동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후기¹⁾에 걸쳐 장기간 동안 큰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양동 마을유적의 변천양상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단편적으로 고찰되고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양동 일대에서 발굴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청동기시대 삼양동 마을유적의 변천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마을내에 배치된 집터의 구조와

1) 한국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는 대략 기원전 13~8세기이고 후기는 8~4세기경으로 이해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토기와 석기 등 출토유물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고대 삼양동 마을유적이 출현했던 시기의 연대설정과 함께 마을의 성행단계 및 소멸시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2. 삼양동마을의 형성

고대 삼양동 마을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러한 유적은 한반도 중부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도 매우 폭넓게 확산되었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의 마을유적은 장방형계 집터와 함께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 돌검, 돌화살촉, 돌대패 등의 유물조합을 보여준다. 삼양동유적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화양상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마을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집터는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그리고 장단축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평면형태와 기둥배치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즉 집터의 상부구조와 관련된 기둥배치를 살펴보면 크게 무주식과 중심주식, 3주식, 4주식, 6주식, 다주식 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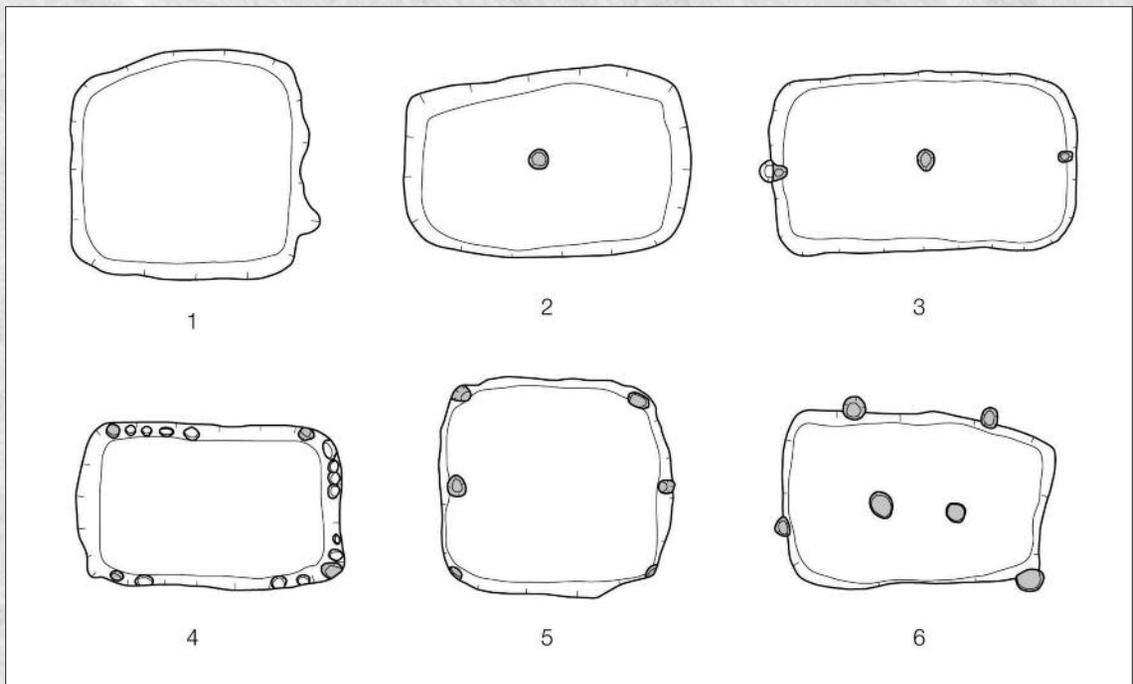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 전기 집터의 형태

먼저 중심주식과 3주식은 동일한 패턴의 집터구조로 이해되는데 중심주식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면적이 5.0~7.1㎡에 해당하고 반면 3주식은 주로 7.8~12.4㎡에 위치한다. 따라서 집터의 내부 중앙에 중심기둥을 배치하고 장축선상의 양단에 각각 기둥을 설치하는 것은 면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무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집터는 내부에 기둥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벽체의 기둥배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집터는 면적이 대체로 4.2~8.3㎡의 소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집터외에 다수의 집터는 벽체에 무질서하게 기둥이 배치되는 형태로 축조되었다. 또한 집터에서는 화덕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 역시 동일한 집터가 급증하는데 삼양동에 축조된 집터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김승옥 2006). 다만 집터의 바닥과 그 위에 불에 탄 흙이 퇴적된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집터 내부의 화덕시설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한다.

반면 장방형계 집터의 단벽 양쪽에 기둥이 각각 배치된 4주식과 6주식 등이 확인되는데 모두 단벽에는 정연하게 배치되지만 반대로 장벽의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조성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집터의 중심 기둥배치는 단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장단축비에 대한 점유율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집터의 장단축비는 방형(1.3:1 미만), 장방형(1.3~2.3:1 미만), 세장방형(2.3:1 이상)으로 구분된다. 삼양동유적에서 장단축 비율환산이 가능한 70동의 집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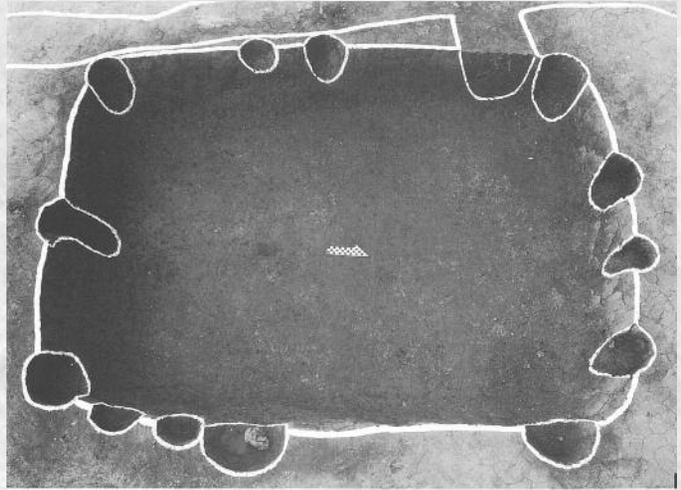


그림 2) 청동기시대 전기의 집터



그림 3)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물

형태 \ 구분	동(棟)	%
방형	28	40.0
장방형	39	55.7
세장방형	3	4.3
계	70	100

표 1) 청동기시대 전기 집터의 형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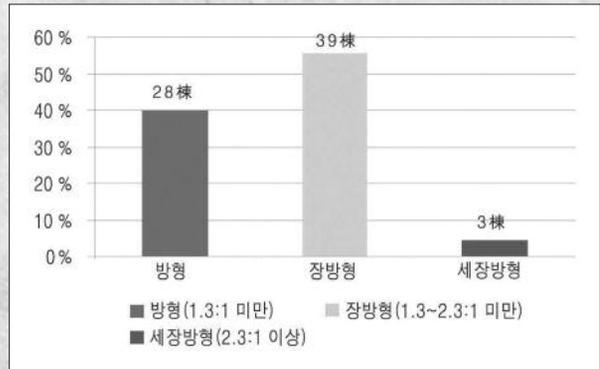


그림 4) 청동기시대 전기 집터의 형태

앞의 표1)과 그림4)에 따르면 방형 28동(40.0%), 장방형 39동(55.7%), 세장방형 3동(4.3%)으로 구분된다. 즉 장방형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형도 4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삼양동 마을에서는 대체로 장방형과 방형의 집터를 주로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반도 중부 혹은 남부지역의 집터축조 양상과 매우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김승옥 2006).

다음은 집터의 면적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면적 \ 구분	동(棟)	%
5㎡ 미만	16	20.3
5~9㎡	52	65.8
10~14㎡	10	12.6
15㎡ 이상	1	1.3
계	79	100

표 2) 청동기시대 전기 집터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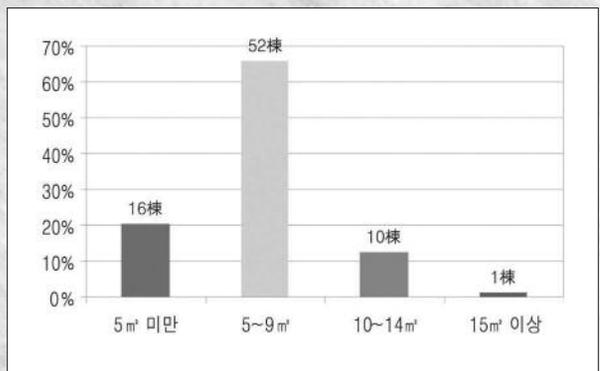


그림 5) 청동기시대 전기 집터의 면적

2) 본고에 수록된 그림과 사진자료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2)와 그림5)를 참고하면 10㎡ 이상인 집터는 11동에 불과하다. 특히 15㎡ 이상은 1동만 확인되는 점을 보면 보편적인 집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기의 집터 면적은 5~9㎡가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기의 집터 규모가 후기의 집터에 비해 소규모로 축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집터가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지역과 다소 떨어진 곳에는 대형 수혈유구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수혈은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내 집터구역과 분리된 지역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무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당시 무덤의 형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기의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토기와 석기류가 대부분이다. 특히 토기류는 대체로 역삼동식토기와 무문양토기가 집중되고 일부 적색마연호가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류는 돌도끼, 돌화살촉, 돌검, 돌대패, 갈돌 등이 확인된다.

먼저 토기류를 살펴보면 역삼동식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 표3)을 참고하면 골아가리 문양이 시문된 단순문양 토기와 무문양의 토기가 각각 42.7%와 43.0%로 높게 확인된다. 반면에 복합문양 토기는 6%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합문양이 소멸되면서 단순문양이 성행하는 단계의 마을유적임을 알 수 있다. 전기의 무문양 토기중에서 직립구연과 외반구연 형태는 각각 26.8%와 16.2%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삼양동유적 보다 앞선 단계로 추정되는 상모리유적에서는 복합문양토기의 점유율이 23.7%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는 복합문양→단순문양으로 변화하며 직립구연→외반구연 형태로 발전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경주 2007).

문양	기형	갯수	점유율(%)
공렬+각목+단사선	직립	2	0.3
	외반	0	0
각목+단사선	직립	1	0.1
	외반	0	0
단사선	직립	2	0.3
	외반	0	0
공렬+각목	직립	39	5.5
	외반	1	0.1
공렬	직립	54	7.6
	외반	3	0.4
각목	직립	237	33.4
	외반	66	9.3
무문	직립	190	26.8
	외반	115	16.2
계		710	100

표 3)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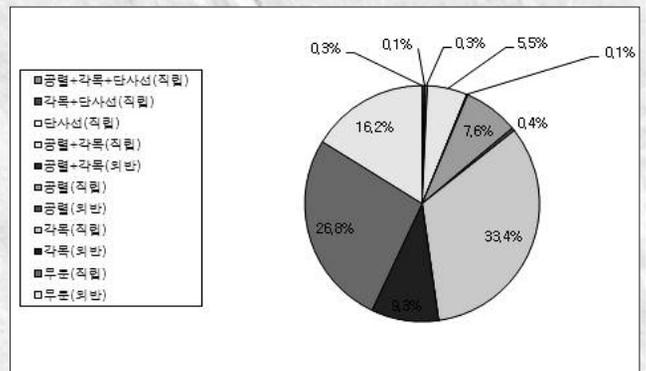


그림 6)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

중부지방의 경우 역삼동유형은 기원전 10~9세기대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홍중·허의행 2010). 또한 퇴화된 혼암리식토기와 함께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공렬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단계를 전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기원전 11~10세기로 파악하고 있다(송만영 2010). 반면 남강유역에서는 단순문양이 성행하는 단계가 대략 기원전 7~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민정 2003). 따라서 삼양동유적의 경우에도 중부지방과 남강유역간의 교차편년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한 표3)을 참고하면 삼양동유적에서는 단순문양(각목)의 직립구연토기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문의 직립구연과 외반구연토기가 16%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립구연토기가 10% 이상 높게 확인된다. 반면에 공렬문이 시문된 단일문양이나 각목문과 결합된 토기는 각각 8%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양동마을은 역삼동계 말기형태의 토기문화와 송국리계 초기형태의 토기문화가 공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반구연에 각목시문된 토기의 증가 양상은 결국 역삼동계→송국리계로의 전환과정에 해당함을 시사하고 있다(김경주 2007).

한편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는 단경의 구연에 편구의 동체를 이루며 동최대경이 중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토기는 사천 이금동, 진주 상촌리, 함안 가미실 등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형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단병식 석검과 동반 출토되었는데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후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현 2006, 이화영 2008).

분류	기종	갯수	%
굴지구	타제석부	1	1.0
벌채구	마제석부(양인류)	5	5.2
가공구	마제석부(편인류)	17	17.7
석기가공구	지석	26	27.1
수렵구	마제석촉	2	2.1
어로구	어망추	1	1.0
식량처리구	요석	5	5.2
	고석	12	12.5
	마석	2	2.1
	연석	21	21.9
상징의례구	마제석검	3	3.2
방직구	방추차	1	1.0
계		96	100

표 4)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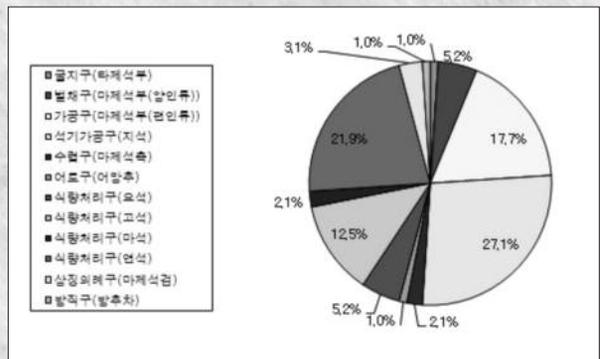


그림 7)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비

다음으로는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를 살펴보면 앞의 표4)와 같다.

상기한 표4)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비를 살펴보면 식량처리구가 41.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수렵구와 어로구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경과 관련된 수확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생업활동은 채집경제에 의존하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에 해당하는 상모리유적에서 다량의 패각이 퇴적된 패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로활동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어로와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생업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석기가공구(20.6%)와 가공구(11.3%)의 비중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공구는 특히 삼양동단계에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상모리→삼양동단계로 전환되면서 석기제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석부는 상모리유적에서는 양인류의 석부 비중이 높은 반면 삼양동단계에는 편인류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³⁾. 석촉은 상모리단계에는 삼각만입촉과 함께 단면 능형의 일단경식촉이 출토되었다. 반면 삼양동단계에도 삼각만입촉과 능형촉이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삼각만입촉과 능형의 유경촉은 늦은시기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제석검은 이단병식석검⁴⁾이 2점 확인된 바 있다. 이단병식석검은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반면 일단병식은 후기에만 출토되고 있어 대조적이다(손준호 2006).

3. 삼양동마을의 변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마을이 조성된 곳이다. 이후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송국리문화를 수용하여 제주 북서부 최대규모의 마을을 축조하였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의 평면형태인 (장)방형계의 집터에서 후기가 되면 원형계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후기의 집터에 대한 형태별 분포현황을 보면 A식(43동, 69.3%), B식(7동, 11.3%), C식(5동, 8.1%), D식(6동, 9.7%), E식(1동, 1.6%)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A식이 전체 69% 이상

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석부를 분석한 결과 전기에는 양인석부(85.7%)가 편인석부(42.9%)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권경숙 2011).

4) 이단병식석검은 전남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박선영 2004, 박미현 2008).



형태	구분	형태	구분
A		E	
B			
C			
D			

그림 8) 청동기시대 후기의 집터형태

을 차지하면서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은 곧 전남지역의 영산강~탐진강유역인 남해안 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유향미 2006, 이종철 2010, 김정주 20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A식 주거지가 성행하는 단계에 마을의 중심연대가 설정될 수 있으며 B·C·D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은 제주 서남부 지역의 화순리와 예래동 마을유적 보다 훨씬 앞선 단계의 마을에 해당한다. 또한 집터의 면적을 보면 대체로 10~1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심지어 25㎡가 넘는 집터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10~20㎡ 내외의 집터는 모두 합해서 83.4%로 대부분의 집터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에 비해 집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주 2010).

형태 \ 구분	동(棟)	%
A식	43	69.3
B식	7	11.3
C식	5	8.1
D식	6	9.7
E식	1	1.6
계	62	100

표 5) 청동기시대 후기 집터의 형태

면적 \ 구분	동(棟)	%
10㎡ 미만	6	9.1
10~15㎡	33	50.0
16~20㎡	22	33.4
21~25㎡	3	4.5
25㎡ 이상	2	3.0
합계	66	100

표 6) 청동기시대 후기 집터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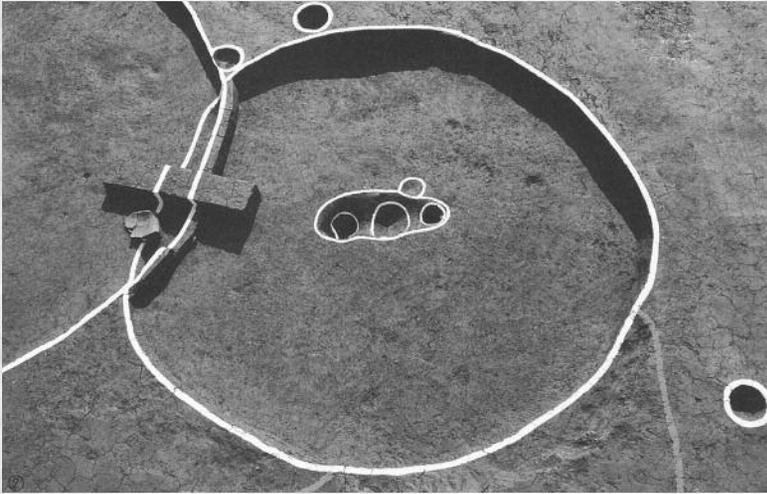


그림 9) 청동기시대 후기의 집터



그림 10)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

주지하다시피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는 제주지역에서 유입(고산리)→수용(삼양동·용담동)→확산(화순리·예래동)→소멸(외도동)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즉 삼양동유적은 송국리문화가 제주에 유입된 후 대규모취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형성된 마을에 해당한다.

한편 삼양동마을의 형성과 소멸과정은 토기의 변천양상을 통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송국리형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남 영암 장천리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 변형 송국리형토기(최성락 1986)와 유사성을 보이는 토기가 확인된다. 또한 직립구연 혹은 내만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점을 보면 남해안권역의 마을유적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10). 즉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송국리문화 단계에는 송국리형토기에서 다소

벗어난 변형의 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기조합이 결국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초기의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양동마을에서 출토된 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해안권역의 토기조합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자료를 검토하면 후기는 크게 2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는 전기에 뒤이어 A식의 원형계 집터를 축조하는 마을이 형성되는 단계로 직립구연토기와 외지산 원형점토대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시기이다. 1단계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5~3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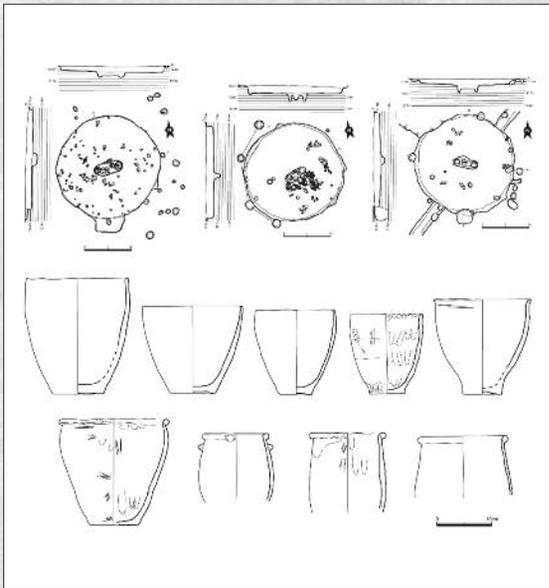


그림 11) 후기의 집터와 출토유물(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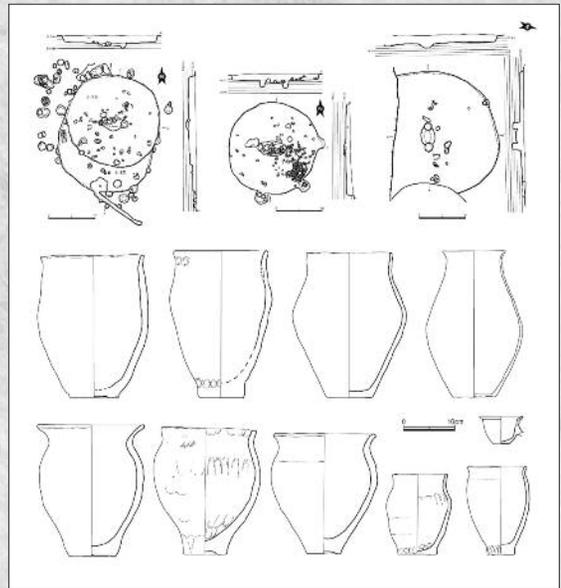


그림 12) 후기의 집터와 출토유물(2단계)

반면에 2단계는 삼양동 마을이 성행하다 소멸하는 단계로 재지산 점토대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병행하는 시기이다. 즉 외지산 원형점토대토기와 직립구연토기가 대부분 소멸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의 삼양동식토기는 구연부 외반정도가 다소 강하며 동체 상부에서 내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2단계의 하한연대를 살펴보면 단면삼각형 파수부 소형발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토기는 전남지방의 해남 군곡리패총에서 출토되었는데 동반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기원전 2세기 말 내지는 1세기 초반~기원후 1세기 중엽까지로 추정하고 있다(최성락 1993). 또한 집터의 평면 형태 역시 확산단계에 주로 확인되는 B·C식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삼양동유적 2단계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한 시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분류	기종	갯수	%
굴지구	타제석부	10	3.5
벌채구	마제석부(양인류)	9	3.1
가공구	마제석부(편인류)	37	12.9
석기가공구	지석	68	23.7
수렵구	마제석촉	12	4.2
식량처리구	요석	20	7.0
	고석	63	22.0
	마석	8	2.8
	연석	52	18.1
상징의례구	마제석검	4	1.4
	곡옥	1	0.3
	검파두식	2	0.7
	석환	1	0.3
계		287	100

표 7)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조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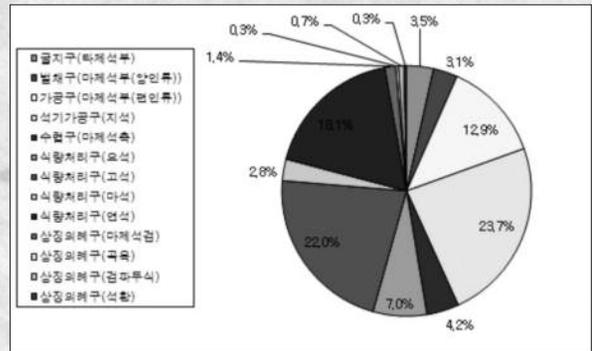


그림 13)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조성비

다음은 석기류의 종류와 조성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기한 표7)과 그림13)을 참고하면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조성비는 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식량처리구가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석기가공구와 가공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상징의례구의 종류가 다양하게 제작되며 석촉류가 증가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따라서 후기의 삼양동 마을주민들 역시 전기와 동일한 생업경제를 영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제석검은 전기의 경우 이단병식이 주류이지만 후기에는 대체로 일단병식과 유경식석검이 다수를 차지하는 차이가 있다.



그림 14)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

삼양동 마을은 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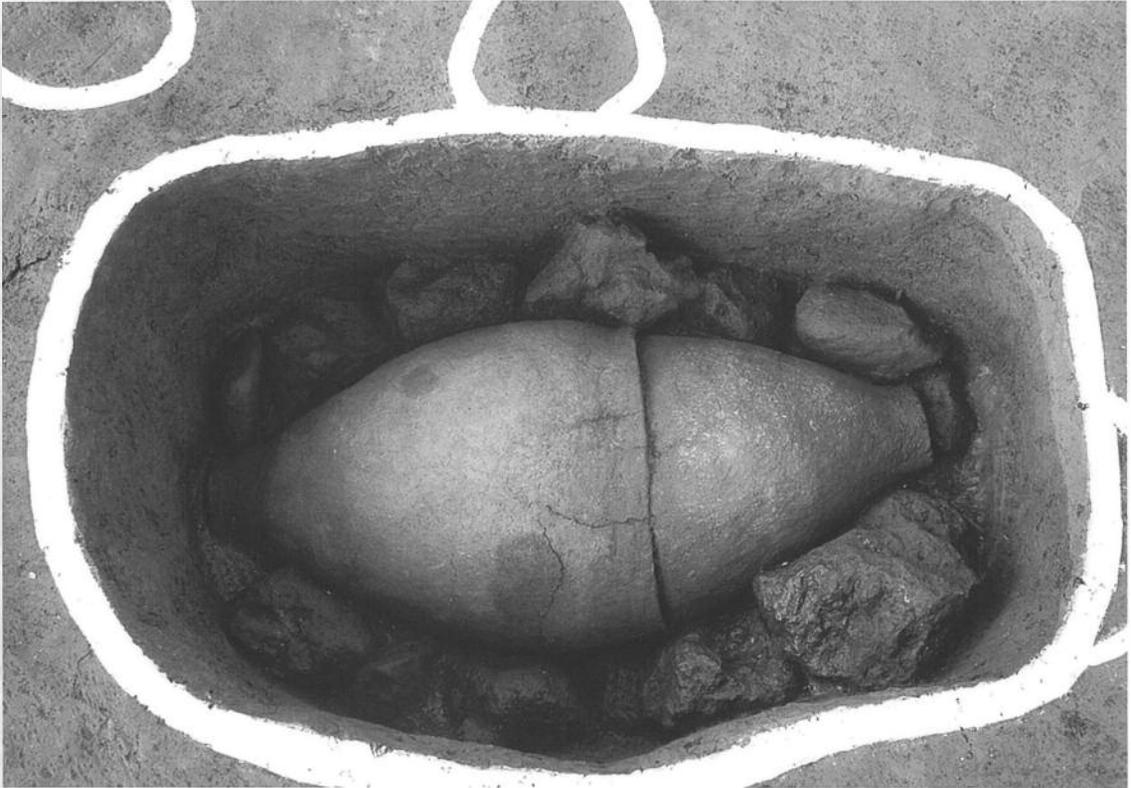


그림 15) 청동기시대 후기의 옹관묘

접어들면서 집터의 형태가 원형으로 변화되며 주로 사용되는 토기와 석기류 역시 바뀌어 간다. 또한 후기에는 마을주민들의 장송의례와 관련된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무덤의 형태는 고인돌과 옹관묘, 토광묘 등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된 삼양동유적에 대한 절대연대분석(AMS)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기의 마을유적에서 산출된 연대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원전 800~400년대의 연대가 주로 산출된다. 따라서 한반도 토기문화의 변화양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후기의 마을유적에서 산출된 절대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40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삼양동유적은 기원전 9세기경 장방형계 집터를 축조한 역삼동계 마을이 출현한다. 다시 기원전 5세기 이후에는 원형계 집터인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후기의 마을이 조성된다. 따라서 송국리형집터는 기원전 4~2세기대 매우 성행하고 기원전 1세기대 이후 급격하게 소멸하면서 고대 삼양동 마을은 사라지게 된다.

4. 맺음말

고대 삼양동마을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9세기경에 처음으로 출현한다. 집터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계의 모양으로 축조하였다.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집터를 제외하고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또한 집터 내부에는 뚜렷한 화덕시설이 확인된 바 없지만 불에 탄 흙더미가 조사되었는데 아마도 이와 연관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류는 대체로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호가 대부분이다.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후반에 해당하는 단순문양이 시문된 역삼동식토기(구순각목문)와 무문양토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석기류는 식량처리구와 가공구의 점유율이 높고 농경과 관련된 석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기원전 5세기 경이 되면 기존에 존재했던 마을은 소멸하고 보다 해안에 근접한 지역에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집터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계에서 원형계로 바뀌고 규모 역시 확대된 형태가 확인된다. 전기에 비해 마을의 규모가 비교적 넓게 조성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장송의례와 관련된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무덤은 고인돌과 독무덤, 움무덤 등이 주로 조영된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의 삼양동 마을은 기원전후한 시점에 완전히 사라진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이 주로 확인된다. 반면 석기류는 전기의 석기조성비와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동일한 생업경제를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징의례구 등이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후기에는 신분계층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3, 「남강유역 무문토기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권경숙, 201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쪽.
- 김 현, 2006,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39호.
- 김경주, 2007, 「삼양동식토기의 시원에 대한 고찰-외반구연토기를 중심으로-」, 『석심 정영화교수 정년퇴임기념천마고고학논총』.
-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 김경주,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한국청동기학보』 제6호.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 박미현, 2008, 「유병식 마제석검의 전개와 지역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4, 「남한 출토 유병식석검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10,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취락편년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제7호.
- 유향미, 2006,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양상」, 『연구논문집』 제6호, 호남문화재연구원.
- 이종철, 2010, 「전남 남해안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한국청동기학보』 제6호.
- 이홍중 · 허의행, 2010, 「호서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와 편년」, 『호서고고학』 23, 138~140쪽)
- 이화영, 2008,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호의 변천」,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제주 삼양동유적-Ⅱ·Ⅲ지구』.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 삼양동유적-Ⅰ·Ⅴ지구』.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도련동유적(614-1번지)』.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유적(1665-1번지)』.
- 최성락, 1986, 『영암 장천리 주거지 I』,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93,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전남지방을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회, 2010, 「청동기시대」, 『한국고고학강의』.